FTA 원산지 검증 대응전략

2017. 6. 20.

관 세 청
순서

Ⅰ 한-아세안 FTA 개요
Ⅱ 원산지 검증의 이해
Ⅲ 수출검증 절차 및 사례
Ⅳ 주요 검증 동향
Ⅴ 기업의 대응 전략
I. FTA 현황
1. FTA 발효 현황

FTA 

제결 국가간 상품·서비스 교역에 대한 관세 및 무역장벽을 철���함으로써 배타적인 무역특혜를 서로 부여하는 협정

❖ 한-칠레 FTA가 2004.4.1. 최초로 발효
❖ 현재 15개, 52개국과 FTA 체결 운영
☞ FTA 연도별 교역비중: 14.7% ('10) → 41.0% ('14) → 67.8% ('16)

<table>
<thead>
<tr>
<th>구분</th>
<th>발효 (15개 FTA, 52개국)</th>
<th>타결 (1개FTA, 6개국)</th>
<th>협상 중 (4개 FTA, 17개국)</th>
<th>공식 협의 (4개 FTA, 9개국)</th>
</tr>
</thead>
<tbody>
<tr>
<td>협정명</td>
<td>칠레, 싱가포르, EFTA, ASEAN, 인도, EU, 페루, 미국, 터키, 호주, 캐나다, 중국, 뉴질랜드, 베트남, 콜롬비아</td>
<td>중미</td>
<td>RCEP, 한-중-일, 에콰도르, 이스라엘</td>
<td>인도네시아, GCC, 멕시코, 일본</td>
</tr>
<tr>
<td>FTA교역비중</td>
<td>67.8%</td>
<td>0.3%</td>
<td>8.2%</td>
<td>8.0%</td>
</tr>
<tr>
<td>누적비율(%)</td>
<td>67.8%</td>
<td>68.1%</td>
<td>76.3%</td>
<td>84.3%</td>
</tr>
</tbody>
</table>

* RCEP: 아세안10개국, 한국, 중국, 일본, 호주, 뉴질랜드, 인도
* 중미: 파나마, 코스타리카, 과테말라, 온두라스, 엘살바도르, 니카라과
* GCC: 사우디, 쿠웨이트, UAE, 바레인, 오만, 카타르
2. FTA 이행 현황 지도

한국과 자유무역협정(FTA)을 맺은 나라들

EFTA(유럽자유무역연합)
발효 시기 2006년 9월
유럽 시장 교두보

EU(28개국)
2011년 7월
세계 최대 경제권 (GDP 기준)과 제휴

터키
2013년 5월
유럽 중심의 시장 진출

베트남
2015년 12월
한국의 3위 투자 대상국

중국
2015년 12월
한국의 1위 교두보

인도
2010년 1월
브리스 국가이면서 거대 시장

싱가포르
2006년 3월
아세안 시장 교두보

아세안(10개국)
2007년 6월
거대 경제권과 체결한 최초 FTA

호주
2014년 12월
오세아니아 주요 시장

뉴질랜드
2015년 12월
오세아니아 주요 시장

미국
2012년 3월
거대 선진 경제권

콜롬비아
2016년 7월
중남미 신호시장

페루
2011년 8월
자원 부족 중남미 거래 교두보

칠레
2004년 4월
최초 FTA

※ 자료 : 조선일보, 2017.5.12.)
3. FTA 활용 수출 확대

■ 총 수출 대비 FTA 교역국 수출비율 약 70.7% (2016)

<table>
<thead>
<tr>
<th>FTA 교역국 수출</th>
<th>비 FTA 교역국 수출</th>
</tr>
</thead>
<tbody>
<tr>
<td>3,504억 $ (70.7%)</td>
<td>1,451억 $</td>
</tr>
</tbody>
</table>

총 수출액 4,955억 $

■ 연도별 FTA 상대국 수출 현황

(단위: 억$)

<table>
<thead>
<tr>
<th></th>
<th></th>
<th></th>
<th></th>
<th></th>
<th></th>
</tr>
</thead>
<tbody>
<tr>
<td>전체(A)</td>
<td>5,479</td>
<td>5,596</td>
<td>5,727</td>
<td>5,269</td>
<td>4,955</td>
</tr>
<tr>
<td>FTA국가(B)</td>
<td>2,044</td>
<td>2,163</td>
<td>2,467</td>
<td>2,358</td>
<td>3,504</td>
</tr>
<tr>
<td>비율*(B/A)</td>
<td>37.3%</td>
<td>38.7%</td>
<td>43.1%</td>
<td>44.8%</td>
<td>70.7%</td>
</tr>
</tbody>
</table>
4. FTA 활용 수입 확대

- 총 수입 대비 FTA 교역국 수입비율 약 64.2%(2016)

<table>
<thead>
<tr>
<th></th>
<th></th>
<th></th>
<th></th>
<th></th>
<th></th>
</tr>
</thead>
<tbody>
<tr>
<td>전체(A)</td>
<td>5,196</td>
<td>5,156</td>
<td>5,256</td>
<td>4,365</td>
<td>4,061</td>
</tr>
<tr>
<td>FTA국가(B)</td>
<td>1,666</td>
<td>1,710</td>
<td>1,993</td>
<td>1,824</td>
<td>2,610</td>
</tr>
<tr>
<td>비율* (B/A)</td>
<td>32.1%</td>
<td>33.2%</td>
<td>37.9%</td>
<td>41.8%</td>
<td>64.2%</td>
</tr>
</tbody>
</table>

연도별 FTA 협정관세 적용 수입 현황

(단위: 억$)
5. 한-아세안 FTA 활용 비교

■ 아세안 국가 수출액 및 FTA 활용율

(단위: 억$)

<table>
<thead>
<tr>
<th></th>
<th></th>
<th></th>
<th></th>
<th></th>
<th></th>
</tr>
</thead>
<tbody>
<tr>
<td>수출금액</td>
<td>792</td>
<td>820</td>
<td>746</td>
<td>749</td>
<td>745</td>
</tr>
<tr>
<td>FTA 활용율(%)</td>
<td>34.8</td>
<td>36.4</td>
<td>37.0</td>
<td>42.5</td>
<td>46.0</td>
</tr>
</tbody>
</table>

■ 아세안 국가 수입액 및 FTA 활용율

(단위: 억$)

<table>
<thead>
<tr>
<th></th>
<th></th>
<th></th>
<th></th>
<th></th>
<th></th>
</tr>
</thead>
<tbody>
<tr>
<td>수입금액</td>
<td>520</td>
<td>533</td>
<td>543</td>
<td>450</td>
<td>443</td>
</tr>
<tr>
<td>FTA 활용율(%)</td>
<td>72.5</td>
<td>74.1</td>
<td>73.8</td>
<td>75.4</td>
<td>78.3</td>
</tr>
</tbody>
</table>
Ⅱ. 원산지 검증의 이해
"FTA 원산지 사후검증 가능한 국내기업 32% 불과"

국제무역연구원 보고서 "대응전략 마련 시급"  (※ 연합뉴스, 2016. 4.1.)

(서울=연합뉴스) 이승환 기자 = 우리 기업들이 자유무역협정(FTA) 활용에 필요한 원산지 사후 검증 역량 면에서 미흡한 수준을 보인 것으로 나타났다.

FTA 원산지 사후 검증이란 체결 국가가 실제로 수혜 품목 재료를 생산했는지 등을 확인 하고 위반시 관세 추징, 벌금 등의 제재를 취하는 절차를 의미한다.

한국무역협회 국제무역연구원이 1일 공개한 FTA 원산지 사후검증 현황 및 시사점 보고서에 따르면 기업 351개사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32.8% 가량이 원산지 사후 검증이 가능한 것으로 파악됐다.

아마지 대부분 기업은 사후검증 대응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응답 기업 중 39.0%는 사후 검증에 대해 잘 알지 못했다고 답했고 잘 안한다고 응답한 기업은 4.6%에 불과했다.

기업 59.1%는 전문 인력 부족으로 관련 업무에 어려움을 느끼고 있었다고 말했다.
원산지 증명 부실로 FTA 특혜 못 받는 사례 급증

올 1~7월 인도네시아 수출 중 101건...작년보다 359%↑

(서종=연합뉴스) 박초롱 기자 = 우리나라 수출기업들이 원산지 증명을 소홀히 하는 바람에 인도네시아에서 자유무역협정(FTA) 특혜를 인정받지 못한 사례가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17일 관세청에 따르면 대(對) 인도네시아 수출에서 FTA 특혜를 인정받지 못한 경우가 올해 1~7월 101건으로 작년 같은 기간(22건)보다 359% 증가했다.

원산지 증명서 신청자와 발급 기관이 조금만 주의를 기울이면 방지할 수 있는 사소한 형식적 오류로 특혜를 받지 못한 경우가 전체의 88%에 달했다.

구체적으로는 품목별 원산지 결정 기준을 적어넣지 않은 경우가 44%로 가장 많았다.

원산지 증명서의 뒷면을 채워 넣지 않은 사례(27%), 필수 기재사항을 빠뜨린 사례(17%)가 그 뒤를 이었다.

관세청은 인도네시아 관세당국에 형식적 오류로 FTA 특혜를 주지 않은 데 대해 유감을 전달했다.
1. 원산지검증의 정의 및 기능

원산지검증 정의
- 수출입 기업이 신고한 원산지증명서의 진정성, 원산지기준의 충족 여부 및 협정관세 적용신청 절차 적정성 여부를 조사하여 FTA 특혜 부여 인정 여부 결정

원산지검증 기능
- 원활한 FTA 이행 ↑
- 공정한 FTA 무역질서 ↑

- 불공정 무역 방지
- 부정특혜 방지
- 제3국 물품 우회수출입 방지
- 원산지 검증
- 역내 교역과 투자 촉진
- 달무세금 환수
- FTA 이행관리
2. 원산지검증의 종류

검증 대상별
- 수입검증
- 수출검증

검증 방법별
- 서면검증
  (자료제출 요구)
- 현지검증
  (현지 방문)

검증 주체별
- 직접검증
  (수입국 세관)
- 간접검증
  (수출국세관)
3-1. 직접 검증

◆ 검증방법
수입국정부가 직접 상대국의 수출자 또는 생산자에게 질의, 정보 요구, 현장방문을 통해 검증하는 방식(미국, 칠레, 싱가포르, 호주*, 뉴질랜드, 캐나다, 콜롬비아)

* 호주는 직접검증과 간접검증 모두 가능

◆ 검증절차

정보분석

검증대상 업체선정

국내검증

서면검증

현지검증

종결

If needed

If possible

If needed

국제검증

서면검증

현지검증

종결

* 국제검증단계에서 수입국 세관이 상대국 수출자·생산자에게 질의 등 직접수행
3-2. 간접 검증

◆ 검증방법
수출국정부당국에게 원산지확인을 요청하여 수출국정부당국이 수출자를 대상으로 검증을 진행하는 검증방식(EU, EFTA, 아세안, 터키, 중국)

◆ 검증절차
정보분석 > 국내검증 > 검증요청 > 국제검증

검증대상 업체선정 > 서면검증 > 현지검증 > 종결

검증요청 
수입국이 수출국에 검증요청

국제검증단계에서 수입국의 요청에 의해 수출국이 자국 수출자·생산자 검증
## 4. 협정별 원산지 검증방식 비교

<table>
<thead>
<tr>
<th>구분</th>
<th>발효일자</th>
<th>검증방식</th>
<th>검증 주체</th>
<th>회신기한</th>
<th>회신주체</th>
</tr>
</thead>
<tbody>
<tr>
<td>칠레</td>
<td>'04.4.1</td>
<td>직접</td>
<td>수입국 세관</td>
<td>30일</td>
<td>수출자</td>
</tr>
<tr>
<td>싱가 포르</td>
<td>'06.3.2</td>
<td>직접</td>
<td>수입국 세관</td>
<td>30일</td>
<td>수출자</td>
</tr>
<tr>
<td>호주</td>
<td>'14.12.12</td>
<td>직접</td>
<td>수입국세관 (참관가능)</td>
<td>30일</td>
<td>수출·생산자, C/O발급기관</td>
</tr>
<tr>
<td>캐나다</td>
<td>'15.1.1</td>
<td>직접</td>
<td>수입국세관</td>
<td>-</td>
<td>수출·생산자</td>
</tr>
<tr>
<td>페루</td>
<td>'11.8.1</td>
<td>직접·공동</td>
<td>수입국세관, 수출국 세관</td>
<td>90일, 150일</td>
<td>수출자, 수출국 세관</td>
</tr>
<tr>
<td>콜롬비아</td>
<td>16.7.1</td>
<td>직접·공동</td>
<td>수입국세관, 수출국 세관</td>
<td>30일, 150일</td>
<td>수출자, 수출국 세관</td>
</tr>
<tr>
<td>미국</td>
<td>'12.3.15</td>
<td>(일반)직접, (섬유류)간접·공동</td>
<td>(일반)수입국 세관, (섬유)수출·수입국 세관</td>
<td>-</td>
<td>수출자</td>
</tr>
<tr>
<td>아세안 (베트남)</td>
<td>07.6.1~'10.1.1</td>
<td>先간접, 後직접</td>
<td>(간접) 수출국 세관(발급 기관), (직접) 수입국 세관</td>
<td>2개월 (6개월)</td>
<td>수출국 세관(발급기관)</td>
</tr>
<tr>
<td>인도</td>
<td>'10.1.1</td>
<td>先간접, 後직접</td>
<td>(간접)수출국 세관, (직접)수입국 세관</td>
<td>3개월</td>
<td>수출국 세관</td>
</tr>
<tr>
<td>EFTA</td>
<td>'06.9.1</td>
<td>간접</td>
<td>수출국 세관(참관가능)</td>
<td>10개월</td>
<td>수출국 세관</td>
</tr>
<tr>
<td>EU</td>
<td>'11.7.1</td>
<td>간접</td>
<td>수출국 세관(공동조사)</td>
<td>10개월</td>
<td>수출국 세관</td>
</tr>
<tr>
<td>터키</td>
<td>'13.5.1</td>
<td>간접</td>
<td>수출국 세관(참관가능)</td>
<td>10개월</td>
<td>수출국 세관</td>
</tr>
<tr>
<td>중국</td>
<td>'15.12.22</td>
<td>先간접, 後직접 (공동)</td>
<td>(간접)수출국 세관, (직접) 수출국 세관 공동</td>
<td>6개월</td>
<td>수출국 세관</td>
</tr>
<tr>
<td>뉴질랜드</td>
<td>'15.12.22</td>
<td>직접</td>
<td>수입국 세관</td>
<td>90일</td>
<td>수출·생산자</td>
</tr>
</tbody>
</table>

◆ 우리나라에는 다양한 검증방식에 따라 검증에 대한 경험이 풍부
5. 원산지검증 내용

거래요건
양당사국간의 교역물품에 대해 특혜관세 적용

운송요건
제3국을 경유하지 않고, 양국간에 직접운송

원산지 요건
원산지 규정(일반기준 및 품목별기준)에 의해 원산지가 역내산으로 인정

품목요건
양허 대상으로 지정된 품목(HS code)에 해당

절차요건
유효한 원산지증명서 구비 / 협정관세적용 신청 등 협정에서 정한 절차를 거침
6-1. 수출검증 요청 사유 (2016년)

- 원산지기준 충족여부 46%, C/O진위여부 17%
  
  원산지기준 충족여부 및 C/O진위여부 사유가 63% 차지함

- 무작위(Random) 검증 요청이 18%에 달하고 있음

(단위: 업체수)

<table>
<thead>
<tr>
<th>원산지기준 충족여부</th>
<th>Random</th>
<th>C/O 진위여부</th>
<th>인증수출자 의심</th>
<th>품목분류 상이</th>
<th>기타</th>
</tr>
</thead>
<tbody>
<tr>
<td>46%</td>
<td>18%</td>
<td>17%</td>
<td>11%</td>
<td>2%</td>
<td>6%</td>
</tr>
</tbody>
</table>

- 원산지증명서 진위여부 의심
- 위변조 의심
- 제3국산 의심
- C/O 형식요건 확인 요청
6-2. 수출검증 결과 원산지 위반유형 (2016년)

- 원산지기준 불충족 41%
- C/O 위변조 6%

☞ 원산지기준 충족여부 등의 사유가 47%를 차지함
☞ 인증수출자 및 C/O 발행권자 위반이 37%를 차지하여 상당한 주의 요망

(단위: 업체수)
7. 검증결과 사후조치

행정벌 (벌금, 과태료) + 협정관세 적용배제

❖ 벌금, 과태료 등 행정벌
☞ 국내법에서 규정된 범위 내에서만 부과 가능
   (2천만원 이하의 벌금 등)

❖ 협정관세 적용배제
☞ 국내법 뿐만 아니라 협정에서 정한 바에 따라 적용배제 조치

❖ 협정관세 적용제한
☞ 최근 5년간 2회 이상 거짓으로 C/O 발급한 수출자 등
Ⅲ. 수출검증 절차 및 사례
1. 한-미 FTA
1-1. 미국 세관 원산지검증 절차

◆ 미국 세관(CBP)에서 Form 28의 자료제출 요청서를 송부하여 서면위주의 검증을 실시

---

CBP form 28
- 자료제출 요구
- Request for information
- 30일내 자료 제출

CBP form 29
- 예비결정 통지
- Proposed Action
- 20일내 소명 기회

CBP form 29
- 최종결정
- Taken Action

서면검증자료가 불충분한 경우 현지검증
- 또는 Liquidation(정산)
1-2. 서면검증 준비방안

Flow charts, technical specifications and other documents explaining the manufacturing process;

An explanation of how the good meets the GN 33(b) rule of origin or the GN 33(o) specific rule of origin;

A bill of materials showing the classification number, origin, and cost (if the good is subject to a RVC calculation) of each material;

A certification of origin or affidavit corresponding to each originating material that fails the prescribed tariff shift; otherwise, the material may be deemed non-originating;

Purchase orders and proof of payment to substantiate values;

Documentation pertaining to assists, inventory management methods, indirect materials, etc.; or

Other documentation, as needed.
<table>
<thead>
<tr>
<th>구분</th>
<th>내용</th>
</tr>
</thead>
<tbody>
<tr>
<td>일자별 공정수행표 (Production Timeline)</td>
<td>섬유 → 사 → 직물 → 의류의 생산과정을 모두 나열하고 각 단계별 공정수행업체의 이름과 수행공정, 생산일자, 거래일자 기재 (염색 및 가공 등 모두포함)</td>
</tr>
<tr>
<td>회사 일반정보 (Factory Profile)</td>
<td>생산에 관련된 모든 기업들의 정보 (회사명, 담당자명, 연락처 및 설비명세, 작업자 수, 생산능력 등)</td>
</tr>
<tr>
<td>원산지증명 (Origin Statements)</td>
<td>원사 및 직물에 대한 원산지확인서 또는 국내제조확인서, 미국 세관에서 요구하는 M/A, 수입원재료 원산지증명서</td>
</tr>
<tr>
<td>거래증빙 (Transaction Records)</td>
<td>원사 및 직물 거래 명세서, 임가공계약서, 임가공비지급명세서, 수출품 선적서류 및 대금결제서류, 원재료·제품의 실제 입출고를 증빙할 수 있는 서류 (발주서, 인수증, 출고지시서, 수출품출고확인서, 수불부 등)</td>
</tr>
<tr>
<td>생산증빙 (Production Evidence)</td>
<td>제품제조공정도, 제품 원재료명세서 (BOM), 공장 및 제조설비목 록, 중업원 명단 및 임금지급내역, 중업원 근무기록 (timecard), 작업지시서, 재단봉제지시서</td>
</tr>
</tbody>
</table>
1) 수입자 허위 원산지증명서 발급 사례

- 수출물품: 바닥용 섬유제품
- 조사배경: 미국 수입자 발급 C/O 중 원산지 위반 의심으로 원산지 검증 착수
- 원산지결정기준: 2단위 세번변경기준(세번변경에 영향을 미치는 재료는 역내산 원사일 것)
- 관세혜택: MFN 3.3% ⇒ FTA 0%

제출 요구 자료

- a certification of origin(원산지증명서)
- bill of materials(원재료 명세서)
- cost data(원가내역서)
- production and manufacturing records(제조공정 기록)
- one sample(샘플)
1) 수입자 허위 원산지증명서 발급 사례

[국산 원산수입 수출상품 제조]

① 수출자 [국내 수출자]

C/O 미발급

② [상품수출]

미국 수입자 [미국 세관]

③ [동사수입물품과 함께 협정선정]

[수입자 C/O 발급, 원산지 KR로 수입선고]

④ [수출자 생산제품 원산지 검증] 자료제출 요구

한국 수출자에게 확인하지 않고 미국 수입자가 한국산으로 C/O 발행
2-2. (한미) 서면검증 사례

### 2) 원산지 결정기준 불충족 사례

- 수출물품: 섬유원단
- 조사배경: 품목분류 오류에 따른 원산지결정기준 불충족 의심
- 원산지결정기준: 2단위 세번째정기준 (세번째정에 영향을 미치는 재료는 역내산 원사일 것)
- 관세혜택: MFN 14.9% ⇒ FTA 0%

### 제출 요구 자료

- 선적된 직물의 제조관련: 스타일 명칭표기, 구매주문번호, 롯트 번호, 공장지정 작업번호
- 섬유 생산부터, 생지, 기타 모든 가공단계에 이르기까지 모든 생산단계에 대한 시간 경과
- 각 단계별 생산자 및 공급자의 이름 및 주소
- 직물 생산에 사용된 각기 다른 섬유에 대해 그 섬유 구매처와 생산자의 이름과 주소
- 제작자/편직자의 이름과 주소 및 제작/편직이 이루어진 날짜
- 실제 작업자의 시간카드와 피 고용인의 성명, 업무분장 및 보수
- 완제품 직물의 구성 명세(섬유원료의 구성, 기술시)와 각 직물의 ½야드 견본
- 생산공정(제작/편직/원산지 부여 생산자)의 개요 및 생산원가 자료 등
2-2. (한-미) 서면검증 사례

2) 원산지 결정기준 불충족 사례

① [수출상품 제조]

② [상품수출]
HS 5903으로 품목분류C/O 발급

③ [협정관세 적용신청]
HS 5903, 원산지 KR로 수입신고

④ [원산지 검증 자료제출 요구]

미국수입자

제5407호 결정 원산지 불충족

역외산 원사를 사용하여 원산지결정기준 불충족

* HS 5903 : 침투.도포.피복직물, HS 5407 : 합성필라멘트사 직물
3-1. (한-미) 섬유 수출기업 방문검증

- 섬유류 검증은 다른 품목과 달리 한국-미국 공동검증

검증방문
- 오전(09:00~10:00 경) 또는 오후(13:00~14:00 경)
- 사전통지 없이 불시방문 (협정 제43조 제6항)/ 특별 여부와 무관

검증통지
- 검증 동의절차
- 납세자 권리헌장 등 법적 권한 고지

인터뷰
- 업체 대표자 및 원산지 관리자 인터뷰
- 특정 수입(수출) 건 생산사실 및 원산지 증빙서류 확인·수집

공장확인
- 업체 생산시설 보유 및 운영 현황 확인
- 생산품 및 원재료 원산지 및 재고관리 현황 등 확인

양 측 세관직원 및 통역 등 10여 명, 약 3~4시간 소요
3-2. (한미) 섬유 수출기업 방문검증

- 검증내용

**인터뷰**
- 상호 연계
- 공장 실사

**시설 보유 현황**
- 시설 가동 현황
- 재고관리 현황
- 지배권 침해 여부

**시설 관리**
- 생산 시설
- 원재료 구매 사실

**판매(수출) 사실**
- 생산 사실

**관계사** (하청 등)

**업체 개요**

**생산시설**
4-1. 직접검증 원산지검증 대응

◆ 애로사항

언어
모든 원산지 관련 서류를 영어로 번역하여 제출

제출서류

• 국내 법령에 표준 제출서류, 보관대상 서류를 규정하고 있으나, 그 외에 요청하는 관련된 모든 서류를 제출
• 구체적 요청서류가 없는 경우, 자료량 방대

소명기회

최초 자료 요구시(30일 이내), 예비결정 통지시(20일 이내) 각 1회 있으나 제출기한 촉박
4-2. 직접검증 원산지검증 대응

◈ 일반적 준비 서류

<table>
<thead>
<tr>
<th>보관 서류</th>
<th>수출자</th>
<th>생산자</th>
<th>수입자</th>
</tr>
</thead>
<tbody>
<tr>
<td>보관 기간</td>
<td>수출신고 수리일로부터 5년</td>
<td>원산지증빙서류를 작성한 날로부터 5년</td>
<td>수입신고 수리일로부터 5년</td>
</tr>
<tr>
<td>보관 서류</td>
<td>원산지증명서 사본, C/O 발급 신청서류&lt;br&gt;수출신고필증&lt;br&gt;당해 물품 생산에 사용된 원재료의 수입신고필증&lt;br&gt;수출거래 관련 계약서&lt;br&gt;원산지 확인서 또는 원산지 소명서&lt;br&gt;생산 또는 구입관련 증빙서류&lt;br&gt;원가계산서, 원재료내역서, 공정명세서&lt;br&gt;원재료의 출납, 재고관리대장 등</td>
<td>수출자 또는 수입자에게 당해 물품의 원산지 증명을 위하여 작성 제공한 서류&lt;br&gt;수출자와의 물품공급계약서&lt;br&gt;당해 물품 생산에 사용된 원재료의 수입신고필증&lt;br&gt;당해 물품 및 원재료의 생산 또는 구입관련 증빙서류 등</td>
<td>원산지증명서 사본&lt;br&gt;수입신고필증&lt;br&gt;수입거래 관련 계약서&lt;br&gt;지재권 관련 계약서(해)&lt;br&gt;과세가격결정 관련 자료&lt;br&gt;국제운송 관련서류&lt;br&gt;사전심사서 사본 등(해) 단, 수입자발행 C/O 경우 : 제외(별도)</td>
</tr>
</tbody>
</table>

4-3. 직접검증 원산지검증 대응

◆ 서류 준비 시 유의사항

- 형식에 구애받지 않음 (ex. 통장사본)
- 원천 서류(사본) 사용
- 영어로 주석 기재 (번역 및 설명)
- 중요 부분 하이라이트 표시
- 원산지/비원산지 재료 구분
- 원재료~수출까지 선후관계 확인
- 원재료 수량의 합리성 (ex. 생산능력)
- 서류 간 일치성 확인 (회계-운영)

(서면검증) 기간 (30일) 내 자료제출이 힘든 경우 연장 요청
4-4. 직접검증 원산지검증 대응

서류 매칭 : 검증 대상건에 대한 원재료 조달부터 수출까지의 관계 증명
4-5. 직접검증 원산지 검증 대응

- 서류 매칭 예시(샘플)

<table>
<thead>
<tr>
<th>Invoice concerned</th>
<th>Exporter</th>
<th>Producer</th>
</tr>
</thead>
<tbody>
<tr>
<td>Invoice LN#006</td>
<td>LN#001</td>
<td>LN#007</td>
</tr>
<tr>
<td>P/N#: 170H 82.6inch x 328yd 1.764KGS</td>
<td>(NO.01) 170H 79.0inch x 1,113yd 3,852.20KGS</td>
<td>(NO.03) 270H 82.6inch x 984yd 5,103KGS</td>
</tr>
<tr>
<td>e170H</td>
<td>79.0inch x 1,113yd 3,852.20KGS</td>
<td>(NO.01) 170H 79.0inch x 1,113yd 3,852.20KGS</td>
</tr>
<tr>
<td>P/N#: 200G 79.0inch x 1,130yd 4,120KGS</td>
<td>(NO.02) 200G 79.0inch x 1,130yd 4,120KGS</td>
<td>(NO.04) 270H 82.6inch x 984yd 5,103KGS</td>
</tr>
<tr>
<td>e200G</td>
<td>79.0inch x 1,130yd 4,120KGS</td>
<td>(NO.04) 270H 82.6inch x 328yd 1,764KGS</td>
</tr>
<tr>
<td>P/N#: 170L 82.6inch x 328yd 1.764KGS</td>
<td>(NO.01) 170L 79.0inch x 1,130yd 3,852.20KGS</td>
<td>(NO.01) 170L 79.0inch x 1,130yd 3,852.20KGS</td>
</tr>
<tr>
<td>e170L</td>
<td>79.0inch x 1,130yd 3,852.20KGS</td>
<td>(NO.01) 170L 79.0inch x 1,130yd 3,852.20KGS</td>
</tr>
<tr>
<td>P/N#: 220N 82.6inch x 984yd 5,103KGS</td>
<td>(NO.02) 220N 82.6inch x 984yd 5,103KGS</td>
<td>(NO.02) 220N 82.6inch x 984yd 5,103KGS</td>
</tr>
<tr>
<td>e220N</td>
<td>82.6inch x 984yd 5,103KGS</td>
<td>(NO.02) 220N 82.6inch x 984yd 5,103KGS</td>
</tr>
<tr>
<td>P/N#: 270H 82.6inch x 328yd 1.764KGS</td>
<td>(NO.04) 270H 82.6inch x 328yd 1,764KGS</td>
<td>(NO.04) 270H 82.6inch x 328yd 1,764KGS</td>
</tr>
<tr>
<td>e270H</td>
<td>82.6inch x 328yd 1,764KGS</td>
<td>(NO.04) 270H 82.6inch x 328yd 1,764KGS</td>
</tr>
</tbody>
</table>

Linkage (between Exports and production for each P/N#)

<No>: Number of Document list
2. 한-EU FTA
1. (한-EU) 원산지증명서 양식 위반

원산지신고서 형식요건 위반

- 품명: 선형 저밀도 폴리에틸렌(HS 3901.10)
- 검증사유: 별도 작성된 원산지증명서의 유효 여부
- EU 세율: MFN 6.5% ⇒ FTA 0%
- 검증결과: 원산지신고서의 형식요건 위반

한국수출자 → EU 수입자 → EU 세관

상업서류가 아닌 별도의 서류에 원산지신고서 작성

특혜 배제
The exporter of the products covered by this document (customs authorisation No ...①) declares that, except where otherwise clearly indicated, these products are of ...②) preferential origin.

.................................................................................................................③)
(장소 및 일자)
.................................................................................................................④)
(수출자의 서명 및 신고서에 서명하는 인의 이름이 명확히 기재되어야 함)

작성 유의사항

▪ 원산지신고서에는 수출자의 원본 서명이 수기로 작성
⇒ 단 인증수출자가 모든 책임을 지겠다는 서면약속을 수출 당사자 관세당국에 제공한 경우에 한하여, 서명하도록 요구받지 않음
(한-EU FTA 원산지 제품의 정의 및 행정협력의 방법에 관한 의정서 제16조)

▪ 그 정보가 문서 자체에 포함되는 경우 이 표시는 생략될 수 있다(한-EU FTA 부속서 3)
2. (한-EU) 원산지증명서 발행 자격 위반

인증수출자 미깡신으로 인한 자격위반

■ 품명: 청소기(HS8508.11)
■ 검증사유: Random check
■ EU 세율: MFN 2.2% ⇒ FTA 0%
■ 검증결과: 인증수출자 자격 없이 원산지신고서 부정 발급

※ 한-EU FTA의 경우, 단일탁송화물이 6천유로 이상인 물품은 반드시 인증수출자만 원산지증명서 발행 가능

한국수출자 ➔ EU 수입자 ➔ EU 세관
제출

처분
인증수출자 기한 만료로
자격 상실,
이전 인증번호를 사용해
원산지신고서 발급

특혜 배제
3. (한–EU) 미인증수출자 원산지증명서 발행

품명: FUSION SPLICER(HS 8515.80)
검증사유: 원산지신고서 진위여부 및 원산지기준 충족 여부 요청
EU세율: MFN 2.7% ⇒ FTA 0%
검증결과: 원산지신고서에 인증수출자번호가 아닌 수출신고번호 기재
⇒ 인증수출자 부적정 기재로 통고처분

한국수출자  →  EU 수입자  →  EU 세관

인증수출자 인증번호가 아닌 수출신고번호 기재
원산지신고서 형식요건 위반
특혜배제
3. 한-아세안 FTA
1. (한-아세안) 원산지확인서 발행 오류

원재료 원산지확인서 발급오류

- 수출물품: 유기화합물
- 검증사유: 선적 전 C/O발급은 협정에서 정한 절차 위반 소지가 있음
- 아세안 세율: MFN 5% ⇒ FTA 0%

검증 결과

◎ (원재료 수입) A제품 HS코드를 ‘AAAA’로 관리 → 품목분류 오류
◎ (완제품 생산, 수출) B제품 HS코드를 ‘BBBB’로 수출, 원산지증명서 발급
◎ (검증 결과) A제품 HS코드가 ‘BBBB’로 확인되어 세번 변경기준 불충족
⇒ 자발적으로 오류 원산지 수정통보
2. (한-아세안) 원산지기준 불충족

검증 개요

■ 품명: 양변기(HS 6910.10)
■ 검증사유: 서명권자와 C/O서명이 불일치하여, C/O 진위여부 의심
■ 아세안 세율: MFN 36% ⇒ FTA 20%(CTH or RVC40%)
■ 검증결과: 원산지신고서의 형식요건 위반

검증 결과

◎ (C/O발급관계) 수출업체C/O와 발급기관 C/O사본이 일치→ 정상발급
◎ (서명불일치 사유) 서명권자 등록 서명을 확인한 결과, 서명은 이상 없는 것으로 확인
◎ (원산지기준) 검증대상물품은 국내 제조자로부터 납품받아 원상태 수출한 것으로, 일부 모델은 한국산이나 일부 모델은 중국산으로 확인
◎ (기타) 일부 물품 제조자는 B업체임에도 수출자인 A업체로 신고 ⇒ 원산지결정기준 불충족에 대해 통고처분, 신고오류항목 정정
3. (한-아세안) 원산지증명서 부적정 발급

검증 개요

■ 품명: 엘리베이터 부분품(HS 8431.31)
■ 검증사유: 인도네시아 관세당국에서 원산지 기준 충족 여부 검증 요청
■ 아세안 세율: MFN 8% ⇒ FTA 0%(CTH or RVC40%)

검증 결과

◎ (C/O 진위여부) 발급기관 확인 결과, 정상적으로 발급한 진본임을 확인
◎ (C/O 적정성 여부) 일부가 원산지 미상 품목임에도 이를 포함하여 C/O 발급
◎ (원산지결정기준) 사용된 비원산지 재료(원산지 미상 포함) 일부가 세번변경기준 불충족
   ⇒ (조치) 수출국 세관에 원산지가 확인되지 않는 일부 품목 통보
4. 기타 협정
1. (한-중) 원산지신고서 진위여부 확인

인장상이

원산지결정기준 표기오류

10. Origin criterion
CTH
2. (한-인도 CEPA) 원산지기준 충족여부

검증 개요

■ 품명: 금 세공품(금 동전, 팔찌, 그릇 등) [ HS 7114 ]
■ 검증사유: 원산지기준(PSR) 충족여부 및 생산 관련 정보 제공 요청
■ 인도 수출검증 요청건수: 1건('15년) ⇒ 11건('16년) ⇒11건(17.4월)

검증 결과

◎ (C/O진위여부) 발급기관에 확인 결과, 세관에서 발급한 진본임을 확인
◎ (원산지기준) 원산지기준(CTH)충족[골드바(HS7108)를 투입하여 금세공품(HS 7114) 생산]
  [생산관련 정보 내역] 1. 수출자의 영리활동 설명, 2. 수출자 사업자등록증 제출 요청,
  3. 대상물품이 한국에서 생산된 것인지 여부, 4. 제조과정 설명 요청, 5. 수출자의 제조
  시설 사진 요청, 6. 제조과정 사용 원재료 출처 요청 7. 수출전 검증 실시 여부

수출검증 대비 원산지소명서 등 증빙서류 보관 철저
3. (APTA) 원산지증명서 진위여부(발행기한 경과)

검증 개요

■ 품명: FITTINGS(HS 3940.10), TUBINGS(HS 3917.31)
■ 검증사유: 원산지신고서 진위여부
■ APTA세율: MFN 10% ⇒ APTA 7%

검증 결과

◎ (C/O진위여부) 발급기관에 확인 결과, 세관에서 발급한 진본임을 확인
◎ (발급일) 수출업체의 ON BOARD DATE(2015년 7월18일 토요일)
  C/O 발급신청은 3근무일 마지막 날 신청(2015년 7월22일), 서류 보정 요구에 따른
  3근무일 보다 1일 경과하여 원산지신고서 발급(2015년 7월 23일)

C/O 발급기간 내에 발급필요
Ⅳ. 주요 검증 동향
1. 한-아세안 FTA 원산지 검증 요청 증가

◆ 수출품목이 다수인 경우에 대한 개별 품목별 원산지기준 미표시
  
  √ 품목번호(HS)가 동일하더라도 품명, 규격 별로 구분하여 품목번호(HS)와 원산지기준을 각 물품별(Article)로 기재

◆ 원산지증명서 양면인쇄 중 오류로 인한 형식적 요건 미비
  
  √ C/O 뒷면 Overleaf Notes 미인쇄 or 반대로 인쇄 or 별지 인쇄 시 적법하게 발급된 C/O로 인정하기 않으므로 재인쇄

◆ C/O상의 품명, 규격이 Invoice, Packing 등과 다르게 표시
  
  √ 수정 또는 재발급된 Invoice, Packing list에 따라 C/O 수정발급
  √ 소급 발급의 경우 C/O에 “Retroactively Issued” 반드시 표기
  √ 3국 송장인 경우 C/O에 반드시 표시
  √ Invoice에 기재된 품명·규격과 C/O에 기재된 품명·규격 일치 필요
2. (한-아세안) 인도네시아 직접운송 위반 검증 요청 급증

검증 개요

■ 품명: 전사지(HS 5601.30)
■ 검증사유: 인도네시아 관세당국에서 통과선하증권 미제출로 직접운송 위반 여부 검증 요청
■ 아세안 세율: MFN 8% ⇒ FTA 0%(CTH or RVC40%)

검증 결과

◎ (C/O 진위여부) 발급기관 확인 결과, 정상적으로 발급한 진본임을 확인
◎ (C/O 적정성 여부) 각 품목별로 구분하여 원산지 기준을 표시하여 C/O 발급
◎ (원산지결정기준) 제품 생산에 사용된 비원산지 재료가 모두 세번변경기준 충족
◎ (직접운송 확인) 하나의 B/L에 한국 선적, 인니 하역이 확인되는 통과선하증권 발행,
  - 선박이 홍콩을 단순 경유했으나 하역 및 재선적이 없어 직접운송 요건 충족 확인
  ⇒ (조치) 원산지기준 및 직접운송 요건 등을 모두 충족함을 통보
<한-아세안 FTA 부속서 3>

제9조 (직접운송)
1. 특혜 관세 대우는 이 부속서의 요건을 충족하고, 수출 당사국과 수입 당사국 영역간에 직접 운송된 상품에 적용된다.
2.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상품이 수출 당사국 및 수입 당사국 영역이 아닌 하나 또는 그 이상의 경유하는 제3국을 경유하여 운송되더라도, 다음을 조건으로, 직접 운송된 것으로 간주한다.
   가. 그 경유가 지리적 이유로 또는 오직 운송 요건에만 관련된 고려에 의하여 정당화될 것이나, 그 상품이 경유국에서 거래 또는 소비되지 아니하였을 것, 그리고
   나. 그 상품이 경유국에서 거래 또는 소비되지 아니하였을 것, 그리고
   다. 그 상품이 하역, 재선적 또는 그 상품을 좋은 상태로 유지하는데 요구되는 공정 외의 어떠한 공정도 거치지 아니하였을 것

<한-아세안 FTA 부록1(OCP)>

제19조 원산지 규정에 관한 부속서 3의 제9조의 이행 목적상, 수출 당사국과 수입 당사국의 영역이 아닌 하나 또는 그 이상의 중간 경유국의 영역을 통하여 운송이 이루어지는 경우, 다음의 각 호의 서류를 수입 당사국의 관련 정부당국에 제출한다.
   가. 수출 당사국의 영역 내에서 발행한 통과선하증권
   나. 원산지증명서
   다. 상품의 상업송장 원본의 사본, 그리고
   라. 그 밖에 부속서3의 제9조의 요건을 충족하였다는 증거인 증빙서류가 있는 경우 그 서류
※ 국제협약에서의 관세부과 절차에 관한 재무부 장관령 제205/PMK.04/2015호 (15.11.17개정)

[제5조] 직접운송 기준
  a. 원산지증명서를 발급한 회원국으로부터 수입국 세관지역으로 직접 발송되는 물품
  b. 원산지증명서를 발급한 회원국으로부터 제3국 (경유 또는 환적)을 통해 발송되는 물품

  1. 상기 물품은 경유국 또는 환적국에서 아무런 조치가 취해져서는 안 된다. (단, 하역작업, 보관 또는 물품의 품질 및, 또는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기타 절차는 제외)

[제10조]
(1) 제3국 (경유 또는 환적)을 통한 물품의 경우, 직접 운송원칙 규정 충족을 위해, 수입업자는 반드시 세관 공무원에게 직접 운송 기준을 충족했다는 증명서를 제출해야만 한다.
(2) 상기 증명서라 함은, 경유/환적국 세관이 발행하는 해당 물품이 하역작업, 보관, 또는 품질 및, 또는 상품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절차를 제외한 어떤 절차도 거치지 않는다는 확인서를 의미한다.
<참고3> 직접운송과 통과선하증권의 관계

◎ 한-아세안 직접운송 증빙으로 통과선하증권 필수

(OCP 제19조)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수입 당사국의 관련 정부당국에 제출하여야 한다.
가. 수출당사국에서 발행한 통과선하증권 나. 원산지증명서 원본다. 물품의 상업송장 원본의 부분
라. 그 밖에 부속서 3 제9조의 요건을 충족하였다는 증거인 증빙서류가 있는 경우 그 서류

직접운송 요건 충족 증빙서류 제출(경유지표시 통과선하증권, 비조작증명서 등)
(통과선하증권? 송하인이 운송화물을 목적지까지 운송하면서 다른 선박회사의 선박을 이용하거나 해운과 육운을 교대로 이용한 경우 최초의 운송업자가 전구간의 운송에 대하여 모든 책임을 지기로 하고 발행하는 선하증권)
3. 인도네시아 수출시 직접운송 증빙 대체서류 안내

◎ 인도네시아 수출 직접운송 증빙 대체서류

가. 수출 당사국의 영역 내에서 발행한 통과선하증권
나. 원산지증명서
다. 상품의 상업송장 원본의 사본, 그리고
라. 그 밖에 부속서3의 제9조의 요건을 충족하였다는 증거인 증빙서류가 있는 경우 그 서류

➢ 가 ; 통과선하증권 ➔ 선적지, 도착지가 표시된 선하증권(B/L, Airwaybill 등)의 참고란에 경유지를 모두 명시하여 발행한 경우 통과선하증권으로 인정

➢ 라 ; 제3국 세관 발행 비조작증명서 ➔ 선사(항공사)가 사전에 발행하고, 서명한 (비조작)증명서 로 대체 가능
4. (한-터키) 한-터키 FTA 원산지 검증 요청 급증

검증 개요

■ 품명: 아세테이트직물(HS 5408.22)
■ 검증사유: 터키 관세당국의 검증 요청(원산지결정기준 충족여부)
■ 터키세율: 8%(산업보호관세 20% 대상) ⇒ FTA 5년 철폐

검증 결과

◎ (쟁점 사항)
- 아세테이트 직물의 원산지결정기준은 쿼터물량 이내 에는 완화기준(재직기준/Fabric Forward), 초과물량은 엄격한 기준(원사기준/Yarn Forward) 적용
- 재직기준으로 C/O 발급 시 원산시설고서에 특정문구(Degoration)를 반드시 기재 필요

◎ (검증결과) 특정문구 미기재건에 대해 원산지결정기준 불충족 통보
- 역외산 원사를 사용,생산하였으므로 재직기준은 충족, 원사기준은 불충족
- C/O 발급 시 특정문구 미기재, 원사기준을 충족하는 것으로 C/O 발급
한·EU/터키 FTA 협정에서는 역내 원재료 조달이 어려운 몇 개의 품목에 한해 연간 쿼터 범위 내에서 품목별 원산지결정기준(PSR)보다 완화된 기준 적용 허용
- 터키의 쿼터 잔량은 확인이 곤란 하여 수입자를 통해 확인 필요
※ EU의 경우 EU 집행위원회의 쿼터물량관리시스템에서 ‘쿼터물량 소진현황’제공

◆ 쿼터 해당 품목의 원산지신고서 발급 시 유의사항

☞ 원산지신고서 작성시 아래 문구를 반드시 추가 기재
(터키) “Derogation—Annex II (a) of the Protocol on Rules of Origin and Origin Procedures"
(EU) “Derogation—Annex II (a) of the Protocol …"
참고

한·EU/터키 원산지예외 쿼터제도

◆ 한·EU FTA 섬유쿼터 대상 품목(HS번호, 물량)

① 면재봉사(HS 5204, 84t)  ② 순면사(HS 5205, 2,310t)
③ 혼방면사(HS 5206, 377t)  ④ 소매용 면사(HS 5207, 92t)
⑤ 재생필라멘트직물(HS 5408, 17.8백만㎡)
⑥ 인조재봉사(HS 5508, 286t)  ⑦ 합성스테이플사(HS 5509, 3,437t)
⑧ 소매용 인조방적사(HS 5511, 203t)
⑨ 재생방적사(HS 5510, 1,718t)

◆ 한·터키 FTA 섬유쿼터 대상 품목(HS번호, 물량)

① 면사(HS 5205, 200t)
② 인조필라멘트 직물(HS 5408, 200t)
③ 재생방적사(HS 5510, 200t)
5. (비특혜) 터키로부터 비특혜 원산지증명서 검증요청 급증

비특혜 원산지증명서 부적정 발행

- 품명: 에어백 원단 (HS 5407.10)
- 검증사유: 서류상 원산지가 한국으로 신고되었으나, 현품검사 결과 중국으로 확인되어 검증 요청
- 터키세율: MFN 8% ⇒ FTA 1.4%
- 검증결과: 한국 수출자가 중국산 에어백용 원단을 한국산으로 비특혜 C/O발급 ⇒ 원산지증명서 허위발급 혐의로 조사의뢰

원단 판매자 → 한국 수출자 → 터키 지사

원산지 세탁 또는 위조 원산지증명서 등으로 분류하여 반덤핑 관세 부과 (20%)
Ⅴ. 기업의 대응전략
## 1. 원산지검증 대응 4대 원칙

<table>
<thead>
<tr>
<th>순번</th>
<th>원칙 내용</th>
</tr>
</thead>
<tbody>
<tr>
<td>1</td>
<td>사전에 서류 준비 철저</td>
</tr>
<tr>
<td>2</td>
<td>협력업체 관리 철저</td>
</tr>
<tr>
<td>3</td>
<td>원산지 관리 전담자 지정</td>
</tr>
<tr>
<td>4</td>
<td>FTA 활용 지원 정책 적극 활용</td>
</tr>
</tbody>
</table>

### 사전에 서류 준비 철저
- FTA 체제에서 원산지 입증 주체(책임)는 수출입기업
- 사후 검증에 대비해 자료 보관은 필수

### 협력업체 관리 철저
- 수출물품 생산에 관련된 수십 개의 협력사도 조사 대상에 포함
- FTA 혜택 없는 국내 납품업체도 원산지 관리가 필요

### 원산지 관리 전담자 지정
- 원산지 관리 전담 인력이 없거나 빈번한 교체는 FTA 활용 장애요인
- FTA 전담 인력의 체계적 육성이 필요

### FTA 활용 지원 정책 적극 활용
- 정부나 협회 등에서 제공하는 지원 정책 적극 활용 필요
### 활용

- □ 전담조직·인력 확보
- □ 전문지식 함양을 위해 노력/교육참여
- □ 협력업체와의 상생협력
- □ 관세청 활용(품목분류, 원산지 결정기준 등)
- □ 정기적 점검(필요시 전문가)

### 검증

- □ 보관 서류 철저 확인 및 자료보관 의무 준수
- □ 검증과정에서 적극적 대응
- □ 전문가 활용(필요시)
- □ [한-미 검증] 세관 상담(수출입 기업지원 센터) 이용
감사합니다